

고토 지오파크

지오파크란?

지오파크란 지구 역사의 일부를 말해주는 독특한 지질학적 유산이 있는 지역과 경관을 말합니다. 지오파크는 생태계 보호, 일반 교육,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국립공원과는 달리 지오파크는 자연사와 문화사가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더 넓은 관점에 입각해 있습니다. 지오파크는 독특한 경관의 일부로 발전해온 지역의 정체성, 역사, 물질적 유산의 변천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기상 재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러한 귀중한 장소를 개발·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공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으로 관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토 열도 지오파크의 위치

고토 열도는 나가사키현의 일부로 일본 열도 남서쪽 끝에 위치합니다. 이 지역에는 약 150 개의 섬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무인도이지만 ‘고토’(다섯 섬이라는 뜻)라는 이름이 나타내듯이 주요한 다섯 섬으로 후쿠에지마 섬, 나루시마 섬, 히사카지마 섬, 와카마쓰지마 섬, 나카도리지마 섬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모고토라고 불리는 섬들의 남부를 지오파크로 지정했습니다. 후쿠에지마 섬, 나루시마 섬, 히사카지마 섬, 그리고 그 주변의 작은 섬들이 포함됩니다.

고토는 무엇이 특별한가?

문화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나 고토 열도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가교입니다. 고토 열도는 비교적 최근인 2200 만 년에서 1700 만 년 전, 대륙에서 분리된 일본 열도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험한 절벽부터 농가의 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지각변동과 화산의 힘으로 형성된 흔적이 보이며, 이렇게 작은 면적에서 지질의 다양성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 대륙에 가까운 섬들은 문화적·경제적 교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8 세기에 후쿠에는 견당사(나라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 초기에 걸쳐 당나라에 파견한 사절)가

바닷길로 중국에 갈 때의 마지막 중계지였습니다. 불교의 수행을 포함하여 그들이 들여온 많은 사상은 오늘날에도 일본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섬들은 19 세기까지 동중국해 해상 무역의 중요한 현관문이었습니다.

외딴 바위투성이 해안선은 17 세기부터 19 세기에 걸쳐 기독교가 비합법화되었을 때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가쿠레 기리시탄’(숨어서 몰래 신앙을 지킨 기독교 신자)의 은둔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다양한 종교사의 증거는 독특한 민속무용, 신도(神道)의 축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실천 등 다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토는 또한 온대종, 아열대종, 열대종이 혼재하는 여러 생태계들의 가교이기도 합니다. 동중국해의 끝, 깊은 오키나와 주상해분(舟狀海盆, 배의 밑바닥처럼 생긴 깊은 해저 지형)과 따뜻한 쓰시마 해류 사이에 위치하는 고토는 일본, 아시아 대륙, 인도태평양의 동식물을 볼 수 있는 드문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